

골피(골깍데기) 알선 진상보고

※ 해태 인천낙우회에서 골피(골깍데기) 알선에 대하여 1986년 12월 10일 “골피(골깍데기) 알선 진상보고”가 본협회에 접수되어 이를 전재합니다. (편집자)

1974년 본 낙우회가 창립된후 다음해인 75년 11월부터 86년 2월까지 10여년을 해태그룹산하 음료부와 서면계약 또는 구두언약등으로 본 골피를 부사료로 사용하여 동절기에 도움을 받던 중 금년 10월부터는 본 낙우회에는 하등에 통보도 없이 개인상인과 계약하고 폭리를 보게하고 낙농가에는 과중한 부담을 주는 처사를 야기하였으므로 별첨 건의문을 해태그룹과 해태유업에 건의하였으나 묵묵부답이고 현지 낙우회나 경찰 당국에서까지 권고하는 등 각 방면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해결될 가망이 전무하오니 협회장님께서 낙농지등에 본 취지를 낙농가에 고지하여 낙농가가 사용치 않으면 쓰레기를 운임주며 가져다 버려야할 여건이오니 제반 사정을 관철하시여 가능한 범위까지 도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순서없이 보고합니다.

건의문

해태그룹회장님의 건승과 산하기업의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74년 4월 해태유업 인천낙우회가 창립이래 해태그룹의 물심양면으로 원조와 협조로 타 유업체 납유 낙농가에 비하여 절대 빈약치 않은 낙

농가로 10여 성상을 자라온 현재에 이르러 사소한문제로 해태음료로부터 배신과 서운함을 당하여 본의 아니게 건의문을 보내는 것을 관대히 용서를 바라옵고 단시일내에 해결책이 모색되기를 기원하오며 다음 몇가지를 건의하오니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1975년 음료사업부에서 골깍질 처리문제로 초창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을 당시 저희 낙우회에서 상부상조정신으로 씩씩 버려가며, 젓소에게 사료부식용으로 회원목장에 공급하기 시작하여 86년 현재에 이르러 왔습니다.

둘째, 골깍질 자체를 잘먹는 젓소도 있고 전연 안먹는 젓소가 있어 각 방면으로 시험시식시켜 현재 80%선까지 잘먹게끔 하여 매년 공급하여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셋째, 75년부터 83년까지 골피공급에 아무런 잡음 없이 전량소비와 젓소부식용으로 절대필요하다는 것을 전국낙농가에게 인식되자 84년부터 해태음료는 쓰레기 일종인 골피를 지금현재는 사용자가 증가하니 상품화하고 기세등등하여 계약금을 해태음료에 예치하고 골피를 공급 받았으나 85년에는 소속미상자와 2중계약하고 낙우회 회원이 필요할때 골피를 공급하지 못하여

착유감량과 지방을 저하로 막대한 손해를 받은 바 있으나 곶피를 계속받을 욕심으로 불평없이 참으면서 85년도 무사히 종결하였습니다.

네째, 75년 10월부터 81년까지는 생골포장용 10cm정도의 철사가 곶피 탈피할때 혼합된 것을 젓소에 먹인 관계로 곶피를 사용한 목장에서는 철사로 인해 착유우가 1두 내지 2두 이상 폐사하는 손해를 받은바 있으나 영세 낙농가라 할 수 없이 곶피를 계속부사료로 사용한 실정이었으며,

다섯째,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문제점도 묵묵히 감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86년에는 우리 낙우회에 한마디 통보도 없이 전량을 상인에게 처분권을 위임하고 낙우회에서는 상인으로부터 공급받으라는 통보입니다. 여기에 상인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할 이유로는,

- 1) 1975~1977년까지는 무료공급
- 2) 1978~1984년까지는 곶피대 3,000원 운임17,000원 계 20,000원이 최고액으로 회원목장에 공급하였습니다.
- 3) 1986년 상인으로부터 공급받으라는 가격은 가. 2.5톤 1차분에 45,000
나. 복사1차분에 65,000
이상과 같이 가격으로 회원목장에 공급을 알선한다면
 $300\text{차} \times 20,000 = 6,000,000$ (1985년도 낙우회 처분량)

$700\text{차} \times 50,000 = 35,000,000$ (1986년도 생산 예정량)

무려 29,000,000원 상당액 폭리를 주게 됩니다.

여섯째, 이상과 같은 애로사항을 현재 음료부 이사님과 담당과장에게 서면, 좌담, 전통 등으로 수습차례교섭하여 예년과 같이 곶피를 받으려고 노력하던차 관할 부평경찰서에서 회원동요와 여론을 정보입수하고 음료부에 해결책으로 권고와 절충을하였으나 곶피 계약자인 박종호를 만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려 1개월간여를 기다리며 해결하여 준다는 언질로 낙우회 임시총회까지 연기하며 미뤄온 현재 회원 동요와 잡음을 진정할 방법이 없어 사업에 바쁘신 회장님과 증역님들께 심각한 낙농가 심정을 건의하오니 심분 고려하시어 12월 16일까지 해결책이 있기를 바라옵고 만약 만에하나 곶피공급이 여의치 않아 발생하는 불상사는 전적으로 해태음료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회장님의 고견과 용단으로 건의사항을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두서없는 건의문을 해태유업산하 200여 낙농가를 대신하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해태유업 인천낙우회 회원일동
회장 임수덕

낙농육우산업의 경쟁력제고는

단미사료의 유통과
쇠고기 유통근대화로!